"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저렴하게 만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서 수산물 대전

완도군은 오는 21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수산물 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완도의 대표 수산물인 전복, 광어(회, 초밥)를 비롯한 다시마, 미역, 멸치 등 건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며 모링가,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등 농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군과 롯데백화점(광주점)은 14일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농·수산 특산품 소비 촉진 업무 협약을 맺고 많은 고객들이 완도군 특산품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촉 홍보를 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전복은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청정바다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시장에 널리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완도산 해조류 등 청정바다 완도산 농수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경기도, 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경기도가 오는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 · 성남분당 · 광명 ·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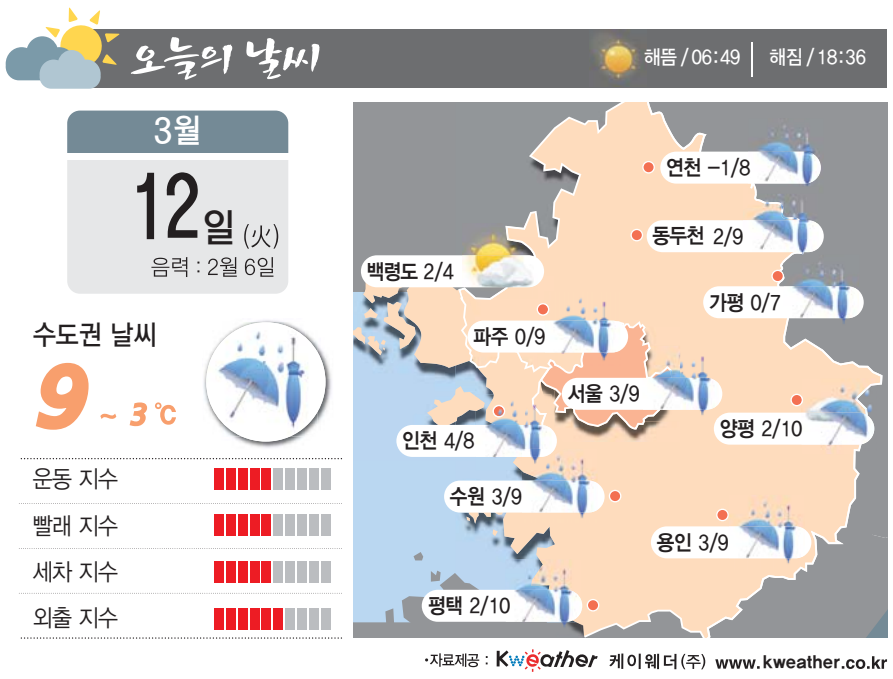
안성시, 초등학교 교통안전 점검·단속

개학기 맞아 불법 주·정차 집중지도

안성시는 학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에 맞춰 불법주정차 단속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개학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시간은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안성교육청과 안성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통학로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지도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이보현 기자



전남도 '이순신 리더십 캠프' 인기

명량대첩 느끼고 리더십 배우고

유적지 답사·활쏘기 체험 등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의 쇄도

이순신리더십캠프.

전라남도가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불패 신화를 남긴 이순신과, 명량대첩을 이끈 전남도민의 희생·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적의 현장인 울돌목 일원에서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운영,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선 수군을 재건해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수백 척의 왜선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를 주제로 담은 리더십 특강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유적지 답사, 충무공 활쏘기 체험, 판옥선 만들기,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명량대첩비, 전라우수영, 진도벽파진전첩비, 여수 충민사, 진남관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청소년에게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고, 지도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청소년 대상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기관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를 바라는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명량대첩기념사업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캠프 참여 학생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올바른 마음과 자긍심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또 이순신 리더십 캠프와 함께 명량대첩 대승을 기념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남우수영관광지와 진도녹진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9월 27~29일 열린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국 최초 맞춤형 노르딕워킹 코스 개발

완도군, 명사십리 해변길 11㎞ 조성
해양에어로졸 풍부… 기후치유 최적지

완도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원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맞춤형 노르딕워킹 코스 개발 등 해양기후치유 자원 확충에 적극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최고 해양휴양지인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해변길 11㎞를 5개 코스로 나눠 맞춤형 노르딕워킹 코스를 개발한다.

노르딕워킹은 1930년대부터 핀란드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에 롤러를 타고 아스팔트에서 훈련하던 방법이 시초가 됐으며 1990년대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일반 걷기보다 운동 효과와 걷기 자세 교정 효과가 훨씬 뛰어난 노르딕워킹은 스틱을 이용해 몸의 균형을 잡고, 속도와 보폭을 넓혀주며 근육의 약 90%를 사용하여 고른 근육 사용과 균형 잡힌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 할 수 있고 심장과 무릎 등 관절에 오는 부담이 30~50% 줄어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몸매 관리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노르딕워킹 코스 개발 대상지인 명사십리 주변 해안길은 고운 모래가 일품인 백사장과 해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해풍과 해양에어로졸(해수가 섞인 공기 입자)이 풍부하여 해양기후치유의 최적지이다.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곧 획득하게 된다.

노르딕워킹 맞춤형 코스는 오는 5월까지 이용자의 연령과 질환에 따른 분석과 거리, 경사도별 난이도를 분석하여 5개 코스로 개발하고 6월 중에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구간에는 바다 전망대, 멍 때리기 좋은 곳, 삼림욕 장소를 지정하여 해양기후치유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미세먼지 마스크 불량 제조·유통사 수사

경기도 특사경, 20일까지 102명 투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정 불량 마스크를 제조 유통 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특사경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오디션'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5회 경기 VR/AR오디션' 참가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획 단계 15개팀, 상용화단계 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 5개 팀 등 총 3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VR/AR 오디션 4기 30개 팀은 6개월 간 NRP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맞춤형 멘토링과 국내외 비즈미팅 프로그램 참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